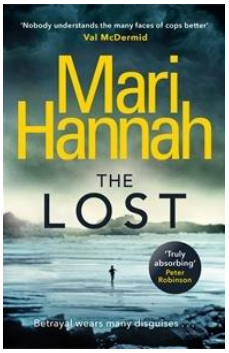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LOST
가제 : 스톤과 올리버 1편: 실종
저자 : Mari Hannah
출판사: Orion
발행일: 2018년 3월 22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스릴러소설

*** '경찰의 여러 얼굴을 저자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Val McDermid**
*** '날카로운 눈과 어두운 마음으로 집필하는 작가다.' – Peter James**
*** 'Kate Daniels' 범죄 소설 시리즈로 성공을 거둔 작가의 새로운 시리즈 – 영국의 노섬브리아를 배경으로, 3대째 형사인 올리버와 런던에서 귀향한 스톤 형사의 첫 사건**

불행한 첫 결혼 생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이와 함께 가까스로 새로운 가정을 꾸린 알렉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그녀가 처음으로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온 사이, 아이가 실종된 것이다. 이제 열 살인 아들 대니얼은 허락 없이 나다니는 아이도 아니고, 평소 길을 잃거나 곤란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충분히 교육도 받았다. 재혼한 남편 팀도 있고, 육아를 도와주는 사람까지 있는 집에서 어린 아이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지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

노섬브리아 지역 토박이이자 경찰 집안에서 태어나 3대째 경찰로 일하기 시작한 프랭키 올리버와 런던에서 근무하다 불행한 사고로 고향인 노섬브리아 지역으로 내려온 범죄수사과 소속 형사 데이빗 스톤은 함께 팀을 이뤄 사라진 데이빗을 찾기 시작한다. 단순 실종 사건인줄 알았던 첫 인상과 달리, 파헤칠수록 지저분한 가족의 비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기 시작한다.

알렉스가 여동생 캐스린과 스페인령 섬인 마요르카로 휴가를 떠난 것은 남편 팀이 집안 일을 돕는 저스틴과 함께 대니얼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당신은 쉬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등을 떠밀었기 때문이다. 사실 알렉스는 여행을 그다지 원치 않았다. 홍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영국 전역은 물론 해외 출장도 수시로 다녀야 하는 터라 비행기를 타는 일이 썩 즐겁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알렉스에게는 인생의 구세주나 다름없는 두 사람, 남편과 아들을 놓고 혼자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팀이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등을 떠민 이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재혼 후 두 사람에게 마침내 새 생명이 찾아왔고 유모까지 미리 구해둘 정도로 부부는 둘째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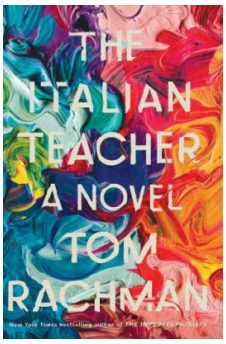
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컸지만, 아이는 알렉스의 뱃속에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검진 결과 알렉스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우울한 진단이 내려졌고, 두 사람 모두 큰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어떻게든 실망감과 아픔을 지우려고 둘 다 각자의 사업에 매달렸다. 잔인한 폭력배였던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나은 대니얼은 알렉스에게 더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두 번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녀의 유일한 아이가 된 것이다.

대니얼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처음 신고한 사람은 팀이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아이가 방과 후 축구 훈련을 마칠 시간쯤 그가 학교로 가서 아이를 집에 데려다 줬어야 하는데 하필 그 날 오후에 사업상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출발해야 할 시간까지 회의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겨우 일을 마친 뒤, 휴대전화를 켠 팀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가정부이자 유모인 저스틴이 왜 미리 연락도 안하고 대니얼을 데려갔냐며 짜증 섞인 문자를 보내 놓은 것이다. 유모는 유모대로, 바빠서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게 됐다는 팀의 연락에 기껏 학교에 갔다가 벌써 누가 데려갔다는 소리만 들었지만 집에 돌아와도 아이가 오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축구 코치는 대니얼이 훈련이 끝날 무렵 어떤 승용차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제 발로 뛰어가서 차에 타는 모습을 봤다고 이야기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신입 경찰이지만 눈치가 빠르고 '촉'이 좋은 편인 프랭키는 뭔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것 같다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진술에 허점이 있고, 누군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왜 범죄 수사과에서 꼬마 하나 없어진 일까지 수사해야 하냐고 되묻는 스톤 형사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랭키의 끈질긴 설득에 수사를 맡기로 한 스톤 형사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알렉스를 직접 만나 바로 인터뷰를 하기로 한다. 그러나 공항에서 알렉스와 마주친 순간, 베테랑 형사인 그가 런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난다. 알렉스에게는 그의 괴로운 기억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프랭키의 도움으로 겨우 인터뷰를 마친 후, 스톤 형사도 이 사건에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두 사람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가족 모두가 이혼하고 아이 없이 혼자 사는 것으로 알고 있던 알렉스의 여동생, 캐스린에게 세 살짜리 딸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프랑스 출신으로 알렉스와 팀의 집안 일을 돕던 저스틴이 오래 전부터 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밝혀진 직후 공교롭게도 캐스린과 저스틴이 누군가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감식 결과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팀이 지목되고, 캐스린의 딸 알리도 팀의 아이였다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된다. 알렉스는 구세주인줄 알았던 팀의 지저분한 사생활을 다 알고 있었을까? 겹겹이 쌓인 거짓말 뒤에 추악한 진실을 찾아내는 두 형사의 활약이 흥미롭고 인상적인 범죄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리 한나(Mari Hannah)는 데뷔작 『The Murder Wall』은 폴라리 데뷔소설 상(Polari First Book Prize)을 수상하고 BBC를 통해 극본으로 각색됐다. 이어 『Settled Blood』로 노던 작가 상(Northern Writers' Award)을 받았다. 『Kate Daniels』 시리즈도 극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2017년에는 사서들의 추천으로 수여되는 CWA 대거 상(CWA Dagger in the Library)을 수상했다.



제목 : THE ITALIAN TEACHER
가제 : 이탈리아어 강사
저자 : Tom Rachman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8년 3월 20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Stoner)' 같은 영웅-세상에서 외면 받으나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열정으로 가득한-을 내밀하게 다룬 소설 / 영국, 캐나다,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판권 계약**
*** 「월 스트리트 저널」「시애틀 타임스」 등 여러 언론에서 '2018년 가장 기대되는 책'으로 선정**
*** "강한 흡입력과 섬세함이 느껴지는 소설. 작가는 소재를 완벽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몰입감 있는 이야기에 유머도 가미되어 있다. 심리적으로 미묘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작품." - 「뉴욕타임스 북 리뷰」**

얼굴은 제외한 신체의 일부를 소재로 삼아, 과감한 붓 터치와 강렬한 색감으로 캔버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남성성이 돋보이는 그림을 그리는 미국 최고의 화가가 있다. 그의 이름은 베어 바빈스키다. 한 순간에 시선을 사로잡는 자신의 작품만큼 자신과 대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카리스마와 매력이 넘쳐 흐르는 특별한 인물이다. 여자들은 물론, 유명한 미술관의 높으신 분들이나 까다롭기로 유명한 수집가들조차 베어 바빈스키 앞에서는 자진해서 고분고분해진다. 제발 만나달라고, 전시회를 열게 해 달라고, 작품 한 점만 팔아달라고 애원하는 대상, 이런 위대한 예술가가 나의 가족이라면 어떨까? 부모라면? 전 세계 25개 언어로 번역되며 베스트셀러가 된 데뷔작 『불완전한 사람들』로 재능을 인정받은 작가는, 세 번째 작품인 이 소설에서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핀치의 일생을 가만히 따라간다. 작품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완벽함을 추구하고 지루한 것은 못 견디는 사람, '좋은 부모'의 기준에 어느 하나 들어맞지 않는 괴팍한 예술가지만 세상을 놀라게 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 그런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치는 아들 핀치의 이야기는 예술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핀치의 엄마인 나탈리는 캐나다 출신의 도예가였다. 좀 더 폭넓은 작품 활동을 펼치기 위해 이탈리아로 와서 6년째 홀로 생활하던 중에 만난 사람이 미국에서 온 베어 바빈스키였다. 베어는 뉴욕에 아내와 세 명의 딸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지만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졌다. 베어가 매년 여름 휴가철이면 나탈리가 있는 로마로 날아와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더위가 가라 앉을 때쯤이면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동안 나탈리는 그의 아이도 홀로 낳아서 키웠다. 도예가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뿐, 자신이 엄마가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나탈리는 마음씨 좋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육아를 하나 둘 배워나갔다. 마침내 핀치가 다섯 살이 되던 해, 베어는 첫 부인과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나탈리와 결혼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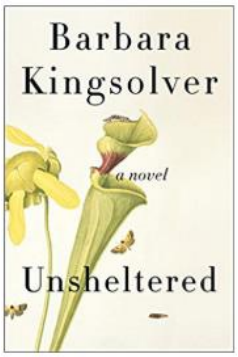
로부터 10년 동안, 세 식구가 로마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며 살았던 그 시기가 핀치와 엄마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두 사람에게 베어는 늘 함께 있고 싶은 남편이고 아빠였지만 그는 온 세상이 주목하는 위대한 화가였고 누구보다 자기애가 강한 그에게 안정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어떤 비평가보다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작품을 대하는 그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곧바로 태워 없애야 직성에 풀리는 사람이었다. 작업실 바깥에 항상 드럼통이 준비되어 있을 정도였다. 그런 성향이 직접 그린 작품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 있는 사람,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핀치는 나중에야 깨달았다. 나탈리도 핀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존재였다. 이탈리아에서 지내던 베어는 핀치가 15세가 된 1965년, 미국에 돌아가겠다고 선언한다. 엄마와 단둘이 남은 핀치는 아버지만큼 뛰어난 화가가 되겠다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급기야 아버지가 있는 미국에 그 동안 그린 그림들을 들고 찾아간다.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고 또 자식들을 거느린 아버지의 집을 방문한 핀치는 화가로서의 재능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절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냉정한 평가를 받는다.

자신과 엄마를 버린 아버지가 밉고 원망스러우면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던 핀치는 베어 바빈스키의 일대기를 직접 쓰기로 하고, 진로를 바꿔 작가가 되기 위해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마저도 마음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다. 두 번째로 큰 좌절을 경험한 핀치는 영국으로 건너가 이탈리아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버지의 관심은 그제야 베어에게로 향한다. 베어에게 거장으로 살면서 느끼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내색조차 할 수 없는 불안감, 작품을 계속 그리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의구심을 모두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핀치가 된 것이다.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 총 다섯 명의 여성과 결혼하고 핀치를 포함하여 열일곱 명이나 되는 자식을 낳고도 믿음직한 아이는 핀치 하나였다. 전과 다른 시선으로 아버지를 대하면서, 핀치는 지나간 세월을 찬찬히 되돌아본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버지에게 눌린 사람이 자기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 누구보다 예술가로 성공하고 싶었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뮤즈였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는 것. 베어 바빈스키는 이탈리아에 살던 시절 그의 세계적인 작품들을 줄줄이 탄생시켰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더 이상 영감을 얻지 못한다고 느낀 순간 어머니와 자신의 곁을 냉혹히 떠나버렸고 이후에도 숱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그럼에도 엄청난 작품을 여럿 남길 수 있었다면, 그런 무절제한 생활도 다 용납되는 일일까? 예술이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 베어가 죽고 그의 작품들을 관리하게 된 핀치는 자신이 평생 경험하며 고민하게 된 이 문제를 남은 아버지의 작품을 통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풀어내기 시작한다. 예술의 목적, 명성과 유명세의 의미와 그로 인해 치러야 하는 대가, 가족에 관한 깊은 고찰이 담긴 소설이다.

<저자 소개>

톰 라크만(Tom Rachman)은 25개 언어로 번역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The Imperfectionists』(2010)를 쓴 작가다. 두 번째 소설 『The Rise & Fall of Great Powers』(2014)도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다.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AP 외신 편집자, 로마 특파원으로 근무했다.

제목 : UNSHELTERED
가제 : 잃어버린 울타리
저자 : Barbara Kingsolver
출판사: Harper
발행일: 2018년 10월 16일
분량 : 480 페이지
장르 : 역사소설



* **"세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우아하게 구축된 소설. 마음을 끄는 이야기 속에 사회 비평이 담겨 있다. 가족의 믿음을 뒤흔드는 시대적인 문제를 풍성한 이야기와 함께 도발적으로 묘사한 작품" - 「퍼블리셔스 위클리」**
* **"작가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다." -「커커스 리뷰」**

좋아하는 글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남편은 종신 교수라 건강만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자식들은 다 커서 각자 나름대로 인생을 일구고 있고, 이제 중년이 된 윌라 녹스의 삶은 평범하면서도 아주 행복하고, 이상적이라 묘사해도 될 만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렇게 안정적이고 평온했던 생활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너진 건 정신이나 마음만이 아니었다. 감당하기 힘든 사건들이 기다렸다는 듯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때 집마저 문자 그대로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유토피아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립된 뉴저지 주의 유서 깊은 마을을 배경으로, 변화 속에서 비로소 깨닫는 인간의 강인한 정신과 기대어 쉴 수 있는 '안식처'의 의미를 되새긴다.

잡지사 편집자로 일하면서 가끔 직접 글을 쓰기도 했던 윌라는 회사가 문을 닫기로 결정하면서 졸지에 실직자 신세가 된다. 그런데 허전한 마음을 느낄 새도 없이 남편마저 똑같은 일을 겪는다. 종신 교수로 재직 중이던 대학이 아예 폐교되는 청천병력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게다가 학교 부지 안에 마련된 교직원 전용 주거 시설까지 학교와 함께 철거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살던 집도 당장 비워야만 했다. 그러나 갑자기 오갈 곳도,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 봉투도 다 사라진 부부의 고난은 시작에 불과했다. 자식들, 부모까지 난데없이 두 사람의 삶에 들어온 것이다.

윌라의 딸 티그는 집시의 피라도 흐르는 아이처럼, 어느 한 곳에 진득하게 붙어 있지를 못했다.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여행을 하겠다며 남미 곳곳을 누비더니, 스물여섯 살이 되도록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 용돈 벌이나 하며 살았다. 다니다 만 대학 등록금은 빚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티그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부모님 신세를 지기로 마음먹고 벌컥 집으로 돌아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윌라는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 지병으로 당뇨를 앓고 있는 시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쇠약해져서 계속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늘어난 식구는 또 있었다. 보스턴에서 살던 아들 지크가 알고 보니 변호사 여자 친구를 만나 3년째 연애를 하면서 동거를 했고, 몇 달 전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놀라운 소식이 너무 늦게야 윌라의 귀에 들어왔다. 어쩌면 훨씬 더 오래 모르고 살 뻔했던 손자의 존재

를 윌라가 알게 된 이유는 너무나 비극적이었다. 지크의 설득에도 결혼 생활에 개인의 삶이 묶이는 게 싫다며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아기 엄마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고 말았다. 태어난 지 겨우 3개월 된 갓난아기와 지크만 남겨둔 채, 분명 행복을 느끼게 하지만 자유를 속박하는 남편, 아이 같은 존재를 감당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미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큰 실의에 빠진 지크 대신 엄마 잃은 손주를 돌봐줄 사람은 윌라 밖에 없었다. 이렇게 두 부부의 삶에 네 사람이 한꺼번에 밀고 들어왔다.

오래 전, 이모가 남겨준 빅토리아 풍 낡은 주택은 윌라가 믿는 유일한 재산이었다. 딱히 모아둔 재산은 없었지만 학교 부지 안에 있던 집에서 쫓겨난 뒤 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러나 대식구를 이끌고 바인랜드라는 마을에 위치한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윌라는 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정말로 집이 여기저기 기울어지고 주저 앉기 시작한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역사적 가치라도 인정받으면 좀 더 비싼 값에 집을 팔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윌라는 지역 역사가들, 부동산 전문가들과 만나 바인랜드와 무너지고 있는 집의 가치를 의논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윌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는다. 150년도 더 된 1871년, 찰스 랜디스라는 사람이 바인 랜드를 처음 건립했을 때 윌라의 집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한 대처 그린우드라는 청년과 그의 이웃이던 여성 과학자 메리 트릿에 관한 이야기였다.

대처가 고등학교에서 과학 교사로 일하던 그 해, 세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흥미로운 사실이 발표됐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라는, 지금껏 누구도 생각해본 적 없는 놀라운 이론을 세상에 발표한 것이다. 진화론에 가장 강력히 반발한 사람은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굳게 믿는 기독교인들이었다. 문제는 대처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수업 시간에 진화에 '진'만 입에 올려도 바로 잘릴 각오를 하라며 엄포를 놓았다는 사실이다. 대처로선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지만, 다행히 말이 통하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었다. 다윈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편지까지 주고 받을 만큼 유명한 생물학자, 메리 트릿이 이웃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과 명예를 목숨처럼 귀중하게 생각하는 아내와 장모님 때문에 집에서도 학교 못지 않게 숨막히는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던 대처는 메리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진화론과 과학에 관한 이야기가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행동과 생각은 유토피아를 꿈꾼 마을 건립자와 교장이 생각하는 '올바른' 생활 방식과 자꾸 부딪히고, 대처는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주민들을 수족 부리듯이 사고방식까지 바꾸려고 하는 세력에 맞서기 시작한다. 긴 시간을 사이에 두고 같은 집에서 인생 최대의 곤경을 맞이한 윌라와 대처, 새 시대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적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각 인물들이 변화에 대처하고 맞서는 방식을 통해 흥미롭게 묘사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바바라 킹솔버(Barbara Kingsolver)는 생물학을 공부하고 연구 활동을 이어가다 소설가, 시인, 논픽션 작가로 활동해 왔다. 2000년에는 국립 인문학 훈장(National Humanities Medal)을 받았다. 2010년 The Lacuna로 오렌지 상(Orange Prize)을 수상하고 2012년에 발표한 『Flight Behaviour』는 '여성 소설가 상(Women's Prize for Fiction)' 결승에 올랐다.

제목 : ODDEST LITTLE BOOKS 시리즈

가제 : 가장 별난 이야기 시리즈

저자 : Beth Good

출판사: Quercus

발행일: 2018년 7월(1-2권) / 8월(3-5권)

분량 : 각 100-150 페이지

장르 : 중편소설/로맨스

*** 영국 아마존 킨들 스토어 '올 스타' 우승 베스트셀러 작가의 중독성 강한 로맨틱 코미디 시리즈**

*** 자가 출판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가로, 별나지만 기분 좋은 이번 시리즈는 Quercus에서 출간!**

1권. 세상에서 가장 별난 해변 가게(THE ODDEST LITTLE BEACH SHOP)

절친한 친구의 제안으로 도시를 떠나 콘월에서 살아보기로 결심한 애니. 세 살 때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간 아버지를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 몇 개월 전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엄마까지 잃은 조카 레오와 함께 마침내 콘월의 리조트 타운인 폴젤에 도착한 바로 그 날, 애니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한다. 좁은 도로 한 가운데 사람인지 동화책에서 튀어 나온 거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체격이 어마어마한 왠 남자가 양 세 마리를 끌고 서 있었다! 도시에서 하던 대로 애니가 어서 비키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리면서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으로 번진다. 전혀 어울리지 않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이름을 가진 이 성질 사나운 남자만 제외하면 콘월 생활은 만족스럽게 흘러간다. 친구 클라우디아가 혼자 운영해온 서핑 용품 판매점에서 틈틈이 일을 도우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던 애니는 폴젤에서 가장 섹시하고 멋진 남자, 제이미에게 반해 그의 마음을 얻을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매년 여름마다 열리는 지역 행사에서 뜻하지 않게 제이미가 아닌 가브리엘과 억지로 한 팀을 이루게 된 애니는 그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고 가슴이 설레인다. 서핑 사고로 아내를 잃고 괴팍해진 남자와 욱하긴 해도 마음 착한 애니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까?

2권. 세상에서 가장 별난 해변 책방(THE ODDEST LITTLE BOOK SHOP)

고향인 콘월의 햇살 쨍쨍한 마을, 폴젤을 떠나 도시에서 연예인으로 크게 성공한 데이지 다이아몬드는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다. 항구 근처, 고급스러운 해변가 리조트에서 푹 쉬려던 데이지의 계획은 도착한 지 5분 만에 박살 나고 만다. 어릴 때 짝사랑했던 아이, 너무 치명적으로 매력적이

라서 '악마'라 불리던 닉이 근처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데이지를 단번에 알아본 닉은 오래전 어색하게 끝난 관계를 되돌리려고 애쓰지만, 순진하게 사랑에 목매는 소녀에서 벗어난 데이지는 닉의 시도가 반갑지만은 않다. 특히 졸업식에 열린 디스코 파티에서 닉이 자신을 뻥 차버린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데이지는 닉의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계속 무시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의 밀고 당기는 싸움이 햇살 좋은 콘월 해변에서 펼쳐진다.

3권. 세상에서 가장 별난 초콜릿 가게(THE ODDEST LITTLE CHOCOLATE SHOP)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초콜릿을 만드는 소중한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깜짝 놀란 클레멘타인은 재정난에 빠진 가게를 살릴 방도를 직접 나서서 찾기 시작한다. 잘 웃지 않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프랑스 출신 가게 주인, 라벨 씨가 그 자리에서 계속 초콜릿만 만들 수 있다면 뭐든 도와줘야겠다고 나설 때만해도 뒤에 그 오지랖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과연 클레멘타인은 곤경에 빠진 가게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쓴 맛만 보게 될까?

4권. 세상에서 가장 별난 찻집(THE ODDEST LITTLE CORNISH TEA SHOP)

예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 콘월의 리조트 마을에서 찻집을 운영하던 이모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뒤, 찰리는 오랫동안 닫혀 있던 가게를 처분하는 대신 다시 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들은 하나 같이 생각을 바꾸라고 한다. 이모가 사랑하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바다로 뛰어들어 목숨을 잃은 것이 찻집에 저주가 내려졌기 때문이라면서 말이다. 찰리는 그런 미신 따위 무시하기로 하고 계획대로 가게를 다시 연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가게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던 어느 날, 후줄근한 차림에 키 만한 배낭을 짊어진 웬 남자가 찾아와서 여름 한 철 일하고 싶다며 섹시한 미소를 날린 것이다. 기데온이라는 이름의 이 수수께기 같은 남자는 찰리에게 찾아온 천사일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 말대로 저주가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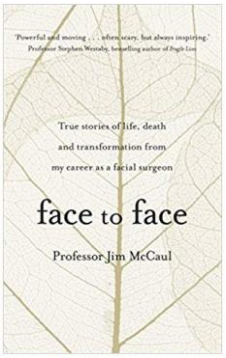
5권. 세상에서 가장 별난 로맨스 상점(THE ODDEST LITTLE ROMANCE SHOP)

열심히 일해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인생 목표인 이지에게 이상한 편지가 한 통 도착한다. 발렌타인 데이에 도착한 그 편지에는 뜬금없이 결혼하자는 프로포즈가 적혀 있다. 혹시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남자가 보낸 건 아닌지 잠시 두근대던 마음도 잠시, 그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지는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을 향해 열렬한 사랑을 고백한 이 정체 모를 인물은 대체 누구일까? 마침내 발신자가 드러나고, 깜짝 놀란 이지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그의 손을 잡으려면 늘 꿈꾸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저자 소개>

베스 굿(Beth Good)은 1988년부터 소설가, 소설 출판인으로 살았다. 주로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썼지만 심리 스릴러(『Jane Holland』), 역사 소설(『Victoria Lamb』), 역사적 사실을 접목한 로맨스 소설(『Tudor and Regency』) 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다.

NON-FICTION



제목 : FACE TO FACE
가제 : 얼굴 만들기
(부제 : 안면외과 의사가 전하는 삶과 죽음, 변화의 이야기)
저자 : Jim McCaul
출판사: Bantam Press
발행일: 2018년 7월 12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회고록/의학

* **"현대 의학에서 가장 까다로운 분야를 멋지게 소개한 책이자 인간이 가진 뛰어난 능력을 겸손하게 들여다본 책" - 「선데이 타임스」**
* **"얼굴은 세상과 마주하는 창문이다. 저자는 이 강력하고 감동적인 책에서 그 창문이 부서졌을 때, 그리고 다시 복구되었을 때의 느낌을 묘사한다." - 베스트셀러 『FRAGILE LIVES』의 저자 스티븐 웨스태비 교수**

얼굴은 타인이 나를 인식하는 주된 창구이자, 매일 우리가 거울로 마주하면서 정체성과 자아를 새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창문' 역할을 한다. 이런 얼굴이 암이나 사고, 추락, 폭력, 교통사고, 총상 등으로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망가져버린다면 그와 같은 기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외모를 중시하는 현대인은 뾰루지 하나만 나도 피부과를 찾고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형수술을 결심하기도 하는데, 좀 더 나은 외모로 '다듬는' 수준이 아닌 아예 얼굴 자체가 망가져버렸다면? 상악안면외과 의사로 수십 년간 얼굴을 잃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되찾아주는 일을 해온 저자는 셀 수 없이 많은 환자들과 함께 한 그 놀라운 여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수십 가지 수술도구를 사용하여, 24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는 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술을 꼼꼼하게 해야 하고, 약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긴장을 감당해야 하지만 단순히 보기 좋은 얼굴을 만드는 것이 아닌 환자의 정체성, 자아를 되찾아주는 일임을 알기에 온 힘을 다해 노력해온 과정이 담겨 있다.

상악안면 외과 분야에서 영국 최고의 의사로 인정 받고 있는 의사는 얼굴이 끔찍하게 변형됐거나 무너진 환자들의 팔이나 다리, 배에서 피부 조직을 분리하여 얼굴 곳곳에 생긴 틈을 메운다. 그 전에 먼저 얼굴에 큼지막하게 자리한 종양을 떼어내는 단계가 필요할 때도 있고, 조직과 조직을 이어 붙이기 위해서는 두 조직을 이어줄 혈관을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바늘로 일일이 꿰매야 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수술 시간이 24시간씩 소요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자는 수술을 준비할 때부터 모든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들려준다. 수술 전 단계를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준비하고, 함께 수술실에 들어갈 동료들과 회의를 하고, 80종이 넘는 수술 도구와 기구를 준비한 다음 저자가 마지막으로 환자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은 선곡이다. 어떤 수술을 실시하느냐에 따라 팝이 선택되기도 하고 몇 시간씩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미세수술에는 헨델, 바흐, 비발디 음악을 신중히 선택한다. 하지만 모든 준비 과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이 진행할 수술 단계를 전부 계획하는 일이다. 저자는 이를 체스 선수가 말의 움직임을 모두 시각화하는 훈련을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이 책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시각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환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릴 때의 심정은 육상 경기를 앞두고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순간과 같다는 표현이나 사람의 피부를 메스로 절개할 때 손에 가하는 힘에 관한 느낌 등 의사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묘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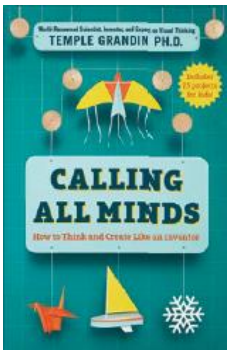
수술이 성공한 사례와 안타깝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사례들도 다양하게 묘사된다. 유망한 수영선수였던 열네 살 소년 환자의 경우 얼굴에 종양이 생겨 턱 전체가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다. 저자는 의료진과 함께 이 소년의 복부에서 피부를 떼어내고 골반에서는 뼈를 일부 잘라 '조각'한 뒤 턱을 새로 만들어낸 과정을 들려준다. 몇 개월 후, 이 환자는 다시 지역 수영 대표선수로 훈련을 재개할 수 있었다. 수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저자의 자세에서 깊은 연민과 인간애가 물씬 느껴진다. 그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와 처음에는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상악안면 외과의가 되기 위해 추가로 받은 혹독한 훈련들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근무지에 따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유형에 큰 차이가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더불어 초고도 기술을 요하는 미세수술과 안면 재건 수술이 1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해온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 별도 소제목 없이 총 16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짐 맥컬(Jim McCaul)은 글래스고에 위치한 퀸 엘리자베스 대학병원에서 상악안면·머리·목 외과 자문 외과의로 근무하고 있다. 브래드포드 티칭 병원과 런던의 로열 마스던 병원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 현재까지 57 편의 학술 논문을 썼다.



제목 : CALLING ALL MINDS
가제 : 발명가의 생각 법
저자 : Temple Grandin
출판사: Philomel Books
발행일: 2018년 5월 15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과학

***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판권 계약 체결**
*** "세상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열렬히 권하는 책. 호기심과 탐구심, 상상력을 키우는 방법에 관한 실용적인 조언이 가득 담겨 있다." - 「커커스 리뷰」**
*** "저자의 회고록이자 발명의 역사를 다룬 정보서이고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공되는 책. 발명과 발명가, 혁신의 시초가 된 생각들에 관한 이야기" -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아직 세상에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물건이나 아이디어를 맨 처음 구현하는 발명은 창의성과 실험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신기하고 놀라운 과정이다. 그러나 발명을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변화를 스트레스로 느끼는 현대인들이 불확실한 것은 멀리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지점에 머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창 호기심이 가득해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조차 기발한 생각을 펼치기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 익숙해진 상황이다. 어릴 적 자폐증을 앓았지만 오히려 흥미를 가지면 누구보다 몰입할 수 있다는 독특한 점을 십분 활용하여 발명가이자 동물학자가 된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이 어떻게 발명을 시작하게 됐는가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왜 남녀노소 누구나 발명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설득한다.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는 쉬운 설명과 함께 나무, 종이 등 가정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연, 보트, 입체경 등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상세한 제작 방법도 함께 제공되는 재미 있는 책이다.

저자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던 아주 어린 시절부터 무엇이든 이미지화하는 일에 익숙했다고 이야기한다. 누군가 '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 그 동안 직접 봤던 개들의 모습이 자동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식이었다. 동물에 대한 깊은 사랑도 기숙학교에 다니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다. 학교에서 경마 수업에 활용되던 말에 푹 빠진 나머지 말을 타는 것은 물론 먹이를 주고, 빗질하고, 배설물을 치우는 일도 자진해서 도맡아 할 정도였다. 그러나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저자의 모습들이 자폐증의 증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한 가지에 꽂히면 그것만 반복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특징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계속 놀림을 받은 시절도 있었다. 병에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도 굴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저자는 자신만이 가진 뛰어난 시각화 능력과 동물에 대한 사랑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분야로 뛰어들어 발명가이자 동물학 박사가 될 수 있었다. 저자는 자신의 삶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던 자폐증 덕분에 사물과 세상을 독특한 눈으

로 바라볼 수 있었고, 동물을 연구할 때도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의 행동이 의미하는 것을 남들과 다르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궁금한 것, 알고 싶은 것을 탐구하고 거기에 혁신을 더해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되었다.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발명가로 만들어준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설명하면서 누구나 조금만 틀을 벗어나면 개개인 누구나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각으로 사물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생각하고, 배우고, 만들어내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변 세상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궁금해하도록 어른들이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알려준다. 이와 함께, 저자는 발명이 역사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어 왔는지 살펴보고 엉뚱하게만 여겨지던 발명품이 유용성을 인정받고 특허를 받은 사례들도 소개한다. 더불어 스물다섯 가지 물건을 독자가 간단한 재료로 만들어볼 수 있도록 제작법을 제공하여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만 느낄 수 있는 촉각과 즐거움을 독자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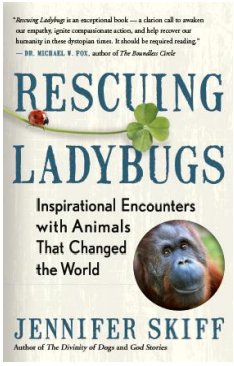
세상을 주어진 대로, 수동적으로 살기보다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때 얼마나 재미 있고 신기한 일들이 많은지 일깨우고,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딱 한 가지 해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길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 호기심 가득한 시각이 열쇠라는 사실을 밝힌 유익하고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머리말
1장. 종이로 만들기
2장. 레버와 도르레
3장. 나무로 만들기
4장. 날아가는 물체
5장. 착시 현상
맺음말: 압축 조형기

<저자 소개>

템플 그랜딘(Temple Grandin)은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동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베스트셀러 『Thinking in Pictures』, 『Animals in Translation』 등 여러 편의 저서를 썼다. 어릴 때 자폐증을 앓았던 경험을 살려, 미국 자폐증협회 소속으로 자폐증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일에도 힘써 왔다. 타임 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도 선정됐다.



제목: RESCUING LADYBUGS
가제: 무당벌레 구하기
(부제 : 세상을 바꾼 동물들과의 놀라운 만남)
저자: Jennifer Skiff
출판사: New World Library
발행일: 2018년 9월 10일
분량: 304 페이지
장르: 에세이/생태학

* "디스토피아적인 현 시대에 공감 능력을 되살리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서 인류애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촉구하는 이례적인 책." - 『The Boundless Circle』의 저자 마이클 W. 폭스
* "동물과 사람은 유대 관계이며, 서로를 돕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구해야 하는 관계라는 저자의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다" - 『Love, Animals & Miracles』의 저자 버니 S. 시겔

애완 동물이라는 명칭보다 반려 동물이라는 말이 친숙해지고 동물은 인간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자진해서 돕는 자원봉사자들처럼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도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다.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그들 중 한 사람이 된 저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명에 연민을 갖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이야기한다. 환경과 자연, 생명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로, 혹은 인간의 냉혹한 이기심 때문에 처참한 상황에 놓인 동물들을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하지 않은 이 책 속의 사람들. 그들이 왜 맨 처음 그 고된 여정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결과를 얻기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때로는 충격적이고 가슴 뭉클하게 하는 감동적인 사례들이 생생하게 소개된다.

저자를 동물 보호 운동가로 만든 사건은 1998년, 라오스에서 일어났다. 우리가 어릴 적 동화책이나 어른들에게서 배우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 가운데 작은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늘 마음 깊이 남아 있었던 저자는 개미 하나도 밟지 않는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에도 자연스럽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불교 국가인 그곳 라오스의 외딴 산 속에서, 그 사상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만다. 다섯 마리의 반달 가슴 곰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좁은 철창에 갇혀 울부짖는 현장을 본 것이다. 앉을 수도 없고 몸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도 없는 작은 우리는 무더운 태양빛을 피할 나무그늘 하나 없이, 뙤약볕 아래 줄줄이 서 있었다. 큰 소리로 우는 곰들을 멍하니 바라보다 그 중 한 마리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곰의 두 눈과 마주치자마자 전해진 고통을 잊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함께 등산을 하던 친구는 "불행한 동물을 전부 다 구할 수는 없어"라고 했지만, 저자는 그 순간 마음에 무언가가 크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고 전한다. 다 구해낼 수는 없어도 모른 척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깨달음, 살면서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무수히 찾아오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보자고 시작한 직후, 세상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저자는 함께 일했거나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들은 사람들의 동물 보호 활동을 자세히 전하면서, 옳은 일을 하는 것, 즉 고통 받는 생명을 구하는 일의 시급성과 가치를 전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기한 동물, 두족류부터 대초원 지대에서 살아가는 코끼리, 오랑우탄, 재규어, 침팬지에 이르기까지, 크기도 사는 곳도 다양한 동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두 팔 걷어 부친 사람들의 열정적인 노력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그리고 다른 생명을 도울 때 도움을 받는 동물뿐만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민 사람도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목차>

머리말
1장. 부처님과 곰 - 연민에서 시작된 개입
2장. 호저, 원숭이, 코끼리, 익족류 동물 - 공동체의 목소리가 갖는 힘
3장. 용, 큰가오리, 오랑우탄 - 모두의 이익을 위한 보존
4장. 개, 고양이, 침팬지 - 옳은 일을 하기 위한 여정, 결코 혼자가 아니다
5장. 돼지, 닭, 토끼 - 선두에 서서 얻은 보상
6장. 곰, 비둘기, 소 - 변화를 일으키는 유대
7장. 비버, 돌고래 - 깨우침을 낳는 변화
8장. 상어, 코요테 - 두려움이 행복으로
9장. 뱀, 재규어, 부엉이, 도롱뇽 - 부름에 답하다

<저자 소개>

제니퍼 스킵(Jennifer Skiff)은 저널리스트, 저술가, 동물 보호 운동가로 활동해 왔다. CNN 환경 부문 취재기자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세계 곳곳의 위기에 빠진 동물들을 직접 목격했다. 그 과정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은 디스커버리 채널 등에서 방영되어 '환경 언론 상(Environmental Media Award)'을 수상한 바탕이 되었다. 저서로는 7개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THE DIVINITY OF DOGS』와 『GOD STORIES』가 있다.

제목 : CULTURE YOUR CULTURE
가제 : 업무 경험 디자인
저자 : Karen Jaw-Madson
출판사: Emerald Publishing Limited
발행일: 2018년 6월 14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경영

* "디자인적 사고를 업무의 특성에 새롭게 적용하여,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책. 매뉴얼보다는 조직 변화에 관한 혁신적인 사고 방식을 제안한 책이다." - 콜롬비아 대학교 조직·리더십 교수, W. 워너 버크(W. Warner Burke)
* "변화는 개입이 아닌 혁신의 과정이며, 문제해결이 아닌 창조의 과정이고 외부에서 가져온 해결책보다 내부에서 직접 찾아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정임을 알려주는 책" - 케이스 웨스턴 리 저브 대학교 교수 데이빗 쿠페리더(David Cooperrider)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성과를 얻고 계획했던 목표를 이룰 때가 있다. 엄청난 판매 실적을 올렸거나, 까다로운 분석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 가능성이 희박했던 계약을 체결시키는 경우 등 이 같은 경험은 일에 보람과 재미를 느끼게 하고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발판이 된다. 이와 반대로,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도 맞닥뜨리게 된다. 실수로 큰 손해를 입었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나 사업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한 경우가 그에 해당할 것이다. 조직 관리 전문가인 저자는 이 양극단의 상황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분석해야 할 사례라고 설명한다. 최고의 성과 혹은 최악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행동/환경 요소가 영향을 주었을까? 그리고 정반대의 의미로 강렬한 이 경험은 당사자, 그리고 관련된 조직 구성원들의 관계와 업무 생산성, 더 넓게는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저자는 이 질문을 통해, 최고의 성과와 최악의 결과는 모두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알맞은 사람이 잘 맞는 조직을 만나 가장 잘 맞는 업무를 맡고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할 때 대다수가 신기루, 혹은 불가능한 꿈으로까지 생각하는 최고의 성과가 자연스레 따라오고, 이 요건이 어긋날 대로 어긋나면 사업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사업체의 목표 달성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조직 문화와 구성원의 업무 경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가는 방법을 '업무 경험 디자인(줄여서 DOWE)'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이 책에서 각 단계를 상세히 설명한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업무 설계,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필요하면 다분야의 개념을 하나로 합치는 혁신적인 사고가 바탕이 된 DOWE 프로그램은 구성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업무 참여를 촉진하고 민첩한 대응력을 키우는 한편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획기적인 해결책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의 개념을 적용한 참신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동감 넘치고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한 경영 지침서다.

<목차>

머리말
- '업무 경험 디자인(DOWE)'의 기원 /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 이 책 활용법
1. 공통적인 필요 요소
2. DOWE 소개
3. DOWE를 분해해보자
4. DOWE의 준비 단계
5. 이해하기
6. 만들기 & 배우기
7. 결정하기
8. 계획하기
9. 실행하기
10. 목표 찾기
부록 A-G

<저자 소개>

카렌 조 메드슨(Karen Jaw-Madson)은 브린모어 대학에서 윤리학과 문화학을 공부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조직 심리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조직관리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조직 문화와 조직 변화, 인력관리 전략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다.

제목 : THE NATURE OF LIFE AND DEATH
가제 : 자연이 알려주는 삶과 죽음: 범죄 생태학의 세계
저자 : Patricia Wiltshire
출판사: Blink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14월
분량 : 약 300페이지
장르 : 에세이/과학

*** 자연이 알려주는 범죄의 진실 – 꽃가루, 곰팡이 포자, 눈에 보이지 않는 식물의 흔적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범죄 생태학의 세계**

손 세정제가 한창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시작했을 때 제품 광고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고 보면 세균이 이렇게나 많다!'는 문구와 함께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손바닥 사진들이 줄줄이 등장했다. 손뿐만이 아니라, 피부나 두피 상태를 진단하려고 작은 카메라를 모공 가까이 들이대면 분명 내 몸인데 너무나 낯선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 놀라게 마련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이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가 존재한다. 그 세계를 알아보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곳에 담긴,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귀중하고 놀라운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토양 샘플과 수백,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초목을 조사하여 다 지워진 먼 옛날의 환경 상태를 분석하는 환경 고고학자로 살던 저자는 우연한 기회에 그처럼 남들은 볼 수 없는 세계를 알아보고, 그 정보로 범죄의 진실을 밝혀내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법의학 중에서도 생소한 분야인 범죄 식물학, 또는 범죄 생태학은 꽃가루와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식물의 물질을 분석하여 미궁에 빠진 수사에 결정적인 정보와 범죄 사실에 관한 근거를 제공한다. 1993년부터 25년간 영국, 아일랜드 전역에서 300건이 넘는 수사에 참여한 저자의 활약과 그 특별한 세계에 처음 발을 들이면서 개인적으로 깨달은 사실들을 진솔하게 밝힌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저자가 처음 범죄 생태학자의 역할을 맡은 것은 이미 대학 교수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며 은퇴를 준비하던 쉰한 살 때였다. 외딴 시골 들판에서 누군가 시체에 석유를 잔뜩 들이붓고 태워서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 소유로 추정되는 차량을 확보한 경찰이 저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은 시골 풍경처럼 보이지만 저자는 지역마다 미세하게 다른 식물과 곤충, 동물이 남긴 흔적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다양하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지구상에 어느 곳이든 1 제곱미터의 땅을 떼어 놓고 봤을 때 똑같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저자 스스로도 반신반의했지만, 수십 년간 연구해온 지식을 바탕으로 저자는 막 열매가 맺기 시작한 야생 자두와 산사나무의 잎, 꽃가루 분석을 통해 경찰이 찾은 차량이 불탄 시체가 발견된 바로 그 장소에 갔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뿐만 아니라 엉망진창이 된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정확히 어디에 눕혀졌는지도 화분 분석으로

밝혀냈다. 완전 범죄를 꿈꾸던 살인자를 이렇게 잡아들인 뒤, 경찰은 이후에도 저자에게 자문을 요청해 왔고 그 때부터 저자의 새로운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교과서처럼 반듯하게, 대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 살아온 저자에게 쉰 살이 넘어 찾아온 새로운 세상은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저자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그토록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감히 뛰어들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25년간 저자는 야생에 버려진 시체를 찾고, 연쇄살인마와 강간범, 아동 살인자를 잡아들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큰 몫을 해냈다. 죄를 짓고 숨은 범죄자를 찾아내는 일과 함께 자기 아이를 해쳤다고 억울한 혐의를 받은 부모들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일에도 참여했다. 신발 바닥에 묻어 있는 유공충과 그 밖에 여러 미생물, 옷에 묻어 있는 화분으로 저자는 누구든 어떤 장소를 지나갔는지 알아낼 수 있다. 내내 도심지를 돌아다녔는지, 잠깐 초롱꽃이 피어 있는 숲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닌지 밝힐 수 있다. 자연은 살아 있든 죽었든 모든 존재의 안팎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남긴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주변 환경에 우리의 흔적을 남긴다. 저자는 바로 이 흔적과 증거를 찾아 갑자기 발견된 부패한 시신이 그 장소까지 오게 된 과정을 역추적하고, 특정 장소에 특정인이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입증하여 진실을 가려낸다. 그 진실게임의 생생한 과정과 함께 범죄 수사와 전혀 무관했던 학자가 그 중심에서 법의학의 새로운 분야를 탄탄하게 구축해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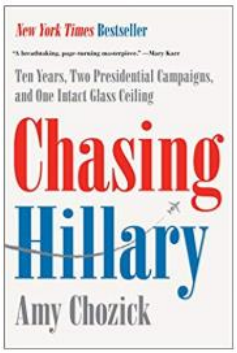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시체를 찾으려면
1 – 10장 (소제목 미정)

<저자 소개>

패트리샤 윌트셔(Patricia Wiltshire)는 범죄 생태학자이자 식물학자, 화분 분석학자다. 영국과 아일랜드 전역에서 이루어진 범죄 수사에 300건 이상 자문을 제공했다.

제목 : CHASING HILLARY
가제 : 뉴욕타임스 기자의 힐러리 취재기
저자 : Amy Chozick
출판사: Harper
발행일: 2018년 4월 24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회고록/정치



*** 영국, 이탈리아 판권 계약 체결**
*** 2018년 4월말 기준 애플 아이북스 자서전·회고록 베스트셀러 6위**
*** "매서운 통찰력, 직관력이 담긴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책. 놀랍다." - 「워싱턴 포스트」**
***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사건에 유머와 신선한 내부 이야기를 결합하여 믿기지 않을 만큼 술술 잘 읽히는 책"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Little Failure』의 저자 게리 슈테인가르트**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주 오랜 시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실생활에서 함께 지내는 이들보다도 그 사람을 더 깊이, 많이 알게 된다. 팬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할 때에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만약 사람을 지켜보고 취재하는 기자라면? 객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숨겨진 진실을 찾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직업인 사람,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한 사람을 10년 동안 꾸준히 지켜보고 분석해왔다면? 2008년 미국 대선 시기부터 2016년 대선이 끝난 시점까지 힐러리 클린턴을 밀착 취재해온 뉴욕타임스 기자가 그 10년간 벌어진 일들을 책으로 엮었다. 사실만을 담기 위해 따로 전문 팩트체커를 고용해서 책의 모든 내용을 점검할 만큼 개인적인 견해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애썼다고 밝힌 이 책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돌진한 힐러리의 긴 여정을 곁에서 지켜보고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 외부자의 시선으로 선거 캠프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통찰이 종합된 결과물이다. 동시에 20대에 처음 힐러리 취재를 시작해서 결혼을 하고 30대를 훌쩍 넘길 때까지 여성으로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 도전장을 내민 사람을 취재하면서 저자가 같은 여성으로서 느낀 소회도 진솔하게 담겨 있다.

버락 오바마와 맞붙은 2008년 대선 후보 경쟁에서 클린턴 후보를 취재하라는 첫 임무가 주어진 2007년 당시만 해도 저자는 10년간 그녀를 따라다니게 될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한다. 두 번의 대선을 치르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유세를 펼치는 버스에 항상 한 자리를 차지하고, 브루클린에 마련된 선거 본부에서 취재를 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2016년 대선의 전 과정을 함께 하는 동안 저자는 힐러리 클린턴을 '도저히 속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라거나 '정치적 동물'이라는 보편적인 인식과 달리, 모순으로 가득하며, 혹독한 정치적 싸움판에 단련된 복잡한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한다. 더불어 저자는 자신이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신혼 집을 구입하고 직장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승진을 위해

애를 쓰고 대선이 끝난 뒤에 아이를 낳으려고 난자를 냉동보관하기로 결정한 뒤, 힐러리도 정치에 뛰어든 초기에 비슷한 선택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한다. 이 뜻하지 않은 공통점에 깊은 친밀감을 느낀 저자는 왜 힐러리가 지금껏 어떤 여성도 성취하지 못한 목표를 향해 그토록 매진하는지, 무엇이 그 쉼 없는 노력의 동력이 됐는지, 그리고 두 번이나 유리천장을 깨지 못한 패배자로 남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트럼프에게 표를 던지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고 판단한 성난 유권자들을 양산한 사회적 분열, 언론을 단순히 싫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얕보는 태도를 드러내고 그로 인해 꼭 알아야 할 사실들에 눈을 감아버린 힐러리의 판단 착오에 관한 저자의 분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치 저널리즘 자체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자로서 좌절하게 된 순간들과 10년의 세월을 지나 대선 패배 후 시골에서 안정을 취하는 동안 비로소 힐러리가 드러낸 가식 없는 모습을 처음 목격했을 때 받은 인상도 있는 그대로 전한다. 박진감 넘치는 정치 소설처럼 흥미진진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1. 행복한 힐러리
2. 질이 보자고 하는데요
3.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
4. 빌 클린턴 칼리가니
5. 이동
6. 외신
7. “아이디어 몇 스푼”
8. “미국 되찾기”
9. 힐러리를 내버려 두세요
10. “아이오와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하 생략, 총 54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에이미 초직(Amy Chozick)은 「뉴욕타임스」 기자로 2008년 미국 대선 시기부터 10년간 힐러리 클린턴을 취재했다.